부산불교교육대학, 승려교육원 문 연다

개원식 3월 8일 예정, 6개월 과정
강의 3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계율과 위의 · 습의와 의례 등 강의
조계종 외 범 종단 스님 대상으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불교교육대학이 3월 8일 승려교육원을 개원한다. 사진은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2019년 9월에 진행한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모습.

개교 40년 이래 재가불자의 신행 교육의 장으로 활동해온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이 승가교육을 위한 승려교육원을 개원한다.

부산불교교육대학 승려교육원(이하 부불대 승려교육원)은 승려의 위의(威儀)와 자질,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 무엇보다 조계종뿐 아니라 모든 종단의 스님들을 위한 교육기관이어서 의미가 크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지난 4년 동안 조계종승려연수기관으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했다. 승려연수기관으로 강의를 진행하던 중 타 종단 스님들을 위한 교육이 강조됐고 부산불교교육대학 승려교육원 운영위원장 자인 스님이 제안해 준비하게 됐다. 자인 스님이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많은 스님들로부터 범 종단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듣게 됐다.

부불대 승려교육원은 3월 8일 오후 3시에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8월 23일에 회향 및 수계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강의일정은 3월 15일부터 8월 16일까지,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총 6개월 동안 이어지는 이번 강의의 수강료는 매월 6만 원, 총 30만 원이다.

부불대 승려교육원 교과목은 △계율과 위의 △습의와 의례 △초발심자경문 △치문경훈 △명상입문 △불교문화 △시대적 포교와 사찰운영이다.

교과 '계율과 위의'는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총 4강이며 前 송광사 율원장 도일 스님이 강의한다. '계율과 위의'는 무엇보다 청정승가의 근본이 되는 계(戒)를 다시 숙고하고 의미를 파악하며 승가공동체와 대중과의 생활에서 갖춰야 할 태도와 예를 익힌다.

'습의와 의례'는 4월 12일부터 4월 19일까지, 총 2강이며 前 범어사 사회국장 성광 스님이 강의한다. '습의와 의례'는 불교의 전통 의례의식을 배우고 예불과 법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초발심자경문'과 '치문경훈'은 4월 26일부터 7월 26일까지, 총 13강이며 前 해인사 강주 무애 스님이 강의한다. '초발심자경문'과 '치문경훈'은 행자와 비구계를 처음 받은 스님들이 익히는 경전이다.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은 깨달음으로 나가는 초석이 될 뿐 아니라 수행의 전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내용이 담겨있다. '치문경훈(緇門警訓)'은 전통강원에서 제일 처음으로 배우는 과목으로, 치문이란 먹물들일 치(淄)와 문 문(門)자를 써서 스님들이 가야할 길을 의미한다.

'명상입문'은 8월 2일 CM명상센터 이사장 하림 스님이, '불교문화'는 8월 9일 김춘식 부산불교교육대학 교수, '시대적 포교와 사찰운영'은 8월 16일 심산 스님(흥법사 주지)이 강의한다.

부불대 승려교육원은 서해 흥교 대종사를 증명으로 교육원장에 심산 스님(흥법사 주지), 운영위원장에 자인 스님(길상사 주지)이 소임을 맡는다.

교육원장 심산 스님은 "승려교육원 교육을 통해 뜻하는 바를 이루고 출가할 때 발원하는 인천의 스승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 스님들의 위엄과 행동은 불자들의 신심을 일으키는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자인 스님은 "스님들의 수행을 위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데 생각보다 타 종단의 많은 스님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반 대중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하지만 알지 못해 실수하는 경우도 생겨 안타까운 마음에 강의를 개설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학장 범혜 스님은 "부산불교교육대학은 그동안 재가자 교육의 산실로 활동해왔다. 앞으로는 재가교육 뿐만 아니라 스님들의 수행생활에 등대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수행하고 대중들의 모범이 되고자하시는 스님들의 교육기관으로 모자람이 없도록 최고의 강사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불교교육대학은 2023년 신입생을 모집한다.

학과는 △기초교리학과 불교학 △불교학과 △불교엘리트학과 △부동산융합풍수학과 △불교문화학과 △문화힐링과정(다도반, 수어반, 합창단, 사물놀이)이다. 각 학과별 매주 1회 수업이며,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강의가 진행된다. 합동입학식은 3월 7일 오후 7시다. (051)711-0700

관음선행장학회, 제35회 장학금 전달식

장학생 36명에 총 3600만 원 전달



인재양성 불사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재)관음선행장학회(대표이사 지현)가 1월 31일 부산 당리동 관음사 원통보전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장학금 대상은 스님 13명(송광사 율원 2명, 송광사 강원 5명, 자비선사 승가대학원 5명, 동국대 1명), 고등학생 7명, 대학생 14명, 대학원생 2명 등 총 36명으로 각 100만 원씩 총 36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관음선행장학회는 1991년 정금강행 등 뜻있는 불자들이 출연하여 자산 1억 원으로 설립 운영해오던 중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다가 2003년 12월 관음사로 정식 이관돼 재단법인으로 등록, 운영되고 있다. 2019년 관음사 회주 지현 스님이 자산 2억 5천만 원으로 증액했으며, 호스피스교육, 교양강좌, 불교교리강좌 등을 개설해 받은 강의료를 전액 장학회 후원금으로 매년 4000여만 원을 출연하고 있다. 매년 관음선행장학회는 30여 명의 학생들에게 각 100만 원씩을 지원, 2022년까지 총 695명에게 6억 9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한편, 관음선행장학회는 부산지역의 모범적인 장학재단으로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헌신할 인재양성에 동참할 인연을 찾고 있다. (051)203-9461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불교사회복지시설, 방한화 지원

방한화 2612켤레 지원



사단법인 부산광역시불교복지협의회(회장 정여)가 1월 27일 부산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불기 2567년 ㈜신아코퍼레이션 후원품(방한화) 전달식'을 개최했다.

정월대보름을 맞아 진행된 이번 전달식에서는 ㈜신아코퍼레인션가 방한화 2612켤레(1켤레 7만 9000원 상당)를 전달했다. 방한화는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공창종합사회복지관, 다사랑복합문화예술회관, 양정청소년수련관 등 부산불교 사회복지시설 24개 기관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정여 스님은 "이번 지원으로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주민들의 몸과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며 "특히 매년 운동화와 방한화를 지원해주시는 (주)신아코퍼레이션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역사회에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동명불원, 따뜻한 떡국 나눔 잔치

지역 어르신에 떡국 · 과일 등 대접
불전공양미 모아 이웃에 회향키로
부산밥퍼나눔공동체와 정기 행사


재단법인 부산 동명불원이 1월 31일 경내에서 자비의 떡국 나눔을 전개했다.

재단법인 부산 동명불원(이사장 김경조, 이하 동명불원)이 1월 31일 경내에서 '자비의 떡국 나눔'을 전개했다.

이번 떡국 나눔은 매월 불자들이 올리는 공양미를 이웃에게 회향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단법인 부산밥퍼나눔공동체와 함께한 이번 나눔에서는 부산 남구지역 어르신 300여 명에게 떡국과 과일, 떡을 대접했다. 나눔을 위해 동명불원 신행단체 회원들이 손수 떡국을 끓이고 자원봉사에 앞장섰으며 동명불원 원장 원순 스님을 비롯해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이 자리해 떡국을 나누고 격려했다.

원장 원순 스님은 "무엇보다 불자들의 나눔 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보살의 삶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명불원은 지난해 5월 사단법인 부산밥퍼나눔공동체와 협약식을 갖고 정기적으로 공양미를 보시하기로 했다. (사)부산밥퍼나눔공동체는 최일도 목사가 주관하는 밥퍼나눔운동본부와는 관련 없는 독립된 사단법인 기관으로 범종교적으로 활동 중이다. 현재 부산역과 시청 뒤 녹음광장 등에서 노숙자 및 저소득 지원 계층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협약은 (사)부산밥퍼나눔공동체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한 김경조 이사장의 활동이 인연이 됐다. 동명불원은 이번 떡국 나눔을 시작으로 매월 지역민을 위한 무료급식을 준비 중이다. 현재 동명불원은 (사)부산밥퍼나눔공동체 무료급식 후원과 지역 복지관, 부산다문화국제학교, 탈북민단체, 독거어르신 사랑의 도시락 및 집수리, 동명대 장학금 전달 등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동명불원은 1월 27일 부산 남구청에서 '사랑의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성금은 총 500만 원이며 전달식에는 김경조 이사장, 성재곤 신도회장, 이원옥 신도부회장, 이상수 신도부회장, 안소민 홍보부장, 이석근 법인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선광사, 정초기도 장학금 전달로 회향

언론종사자 자녀에 총 300만 원



인재불사도량 백양산 선광사(주지 성문)가 1월 30일 경내 대웅전에서 '제4회 불교계 언론인 자녀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선광사는 정초기도 회향을 맞아 부산지역 언론종사자 자녀 10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 30만원씩 총 3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성문 스님은 "학생 여러분들은 땅속에 묻혀있는 다듬지 않은 원석과 같은 존재다. 선광사에서는 원석을 다듬는 밑거름이 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다"며 "학생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 아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그에 맞는 한 가지 기술을 제대로 익혀 이 세상 제일가는 기술자가 되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선광사는 불교계 언론종사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뿐 아니라 매년 대덕여고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지역 어르신과 저소득 소외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